

김태경: 이제 세 번째 세션으로, 동경대학의 이토 유키코 선생님께서 먼저 발표를 하시고, 그 다음에 한영규 선생님께서 두 번째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이토: 동경대학 연구원인 이토 유키코입니다. 전공은 윤리학, 일본사상입니다. 특히 설화문학에 보이는 사상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번 발표에서는 姨捨(오바스테) 傳説을 제재로 한 『櫛山節考』라는 소설을 중심으로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에 대하여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死生을 위치 지운다는 것

— 일본인의 생명윤리의 基底를 이루는 것

이토 유키코(伊藤 由希子)

들어가는 말

2010년 7월 25일, NHK 교육방송에서 ETV 특집 「먹지 않아도 살수 있다 - 위루(胃瘻)의 功과 罪」라는 프로그램이 방영되었다. 위루란 몸 표면에서 胃로 열려진 구멍을 말한다. 식도를 통하여 충분한 영양섭취가 곤란하게 된 환자에게 위루에 관을 장착하여 유동식이나 약제를 직접 위속으로 투여하는 것으로, 효율적인 영양보급을 가능하게 한다.

처음에는 開腹術로 위루가 만들어졌는데, 1979년에 經皮內視鏡的胃瘻造設術(Percutaneous endoscopic gastrostomy - PEG)라고 불리는 새로운 기술이 미국에서 개발되었다. 이것은 내시경(위 카메라)을 사용하면서도 5내지 6밀리 정도만 절개하고, 시간도 10분 정도에서 끝나는 수술이다. 이 PEG의 등장으로 인하여 위루는 급속히 보급되어, 일본에서도 40만명 정도가 위루의 처치를 받고 있다.

그런데, 이 위루와 PEG는 원래, 섭식, 소화장애가 있는 소아환자를 위하여 개발된 기술이었다. 즉 최종적으로는 병증이 호전되어, 자력으로 식도 영양섭취가 가능하게 되는 것을 전제로 한 기술인 것이다. 그러나 소아환자뿐만 아니라, 여러 환자의 영양보급방법으로 응용됨으로 인하여, 생각하지 않았던 사태가 특히 일본에서 진전되고 있다고 한다.

근년, 간편하다는 이유로 PEG가 과도하게 시행되게 이르렀다고 인식되고 있다. 즉 환자가 자신의 입으로부터 음식을 섭취함에 곤란함을 보이면, 우선 PEG를 시행하는 의사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PEG를 추진하고 있는 일본의 전문의는 「PEG를 시행하는 진짜 목적은 식도섭취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며, 그 최선의 방법이 PEG이다」(스즈키, 2000)라고는 하나, 그러나 수많은 PEG의 실제 대상자는 의식장애가 심각한 고령의 뇌혈관 질환자나 認知症 환자이며 두 번 다시 자신의 입으로는 음식을 섭취 못한 채로 생애를 마감하는 사람들이 태반을 이루고 있는데 일본에서의 PEG 대상자중 알츠하이머 말기의 환자는, 최근 구미의 연구에 의하면, PEG의 적응대상제외라고 한다¹.

NHK의 프로그램이 다루고 있는 것은, 그야말로 이처럼 알츠하이머나 뇌경색을 앓아, 자력으로 식사 불가능한 고령자에의, PEG수술의 옳고 그름에 관련된 문제였다.

링겔이나 주사를 맞는다는지, 코로부터 목으로 관을 집어 넣어 행하는 영양섭취에 비하여 감염이 적으며, 환자본인도 고통을 거의 느끼지 않으며, 또 환자가 식사를 하게끔 하는데 들어가는 수고를 큰 폭으로 줄이는 위루는, 의료시설이나 병 간호시설로부터도 환영을 받게 되어, 일본에서는 개발당초의 의도와는 다른 형태로, 고령자를 중심으로 시술이 이루어 지게 되었다.

더욱이, 위루는 다른 영양보급방법보다도 면역력을 높이는 효과가 높고, 링겔에 의한 영양보급(중심정맥영양)에서, 환자의 생존기간이 평균 8개월인 것에 대하여 위루를 사용하면 1년 9개월이라는 결과에서 보듯이, 획기적인 연명효과를 보이고 있다. 예를 들면, 프로그램 서두에서 소개되었던 83세의 여성은 뇌출혈을 일으켜, 입으로부터는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불가능하게 되어도 6년이나 생존하고 있었다.

앞선 인용문에서 보았던 의사 스즈키 유는 일본에서 PEG를 도입한 제 일인자인데, 이 프로그램에서는 다름아닌 그 당사자가 「많은 고령자가 의식도 없고, 전혀 움직이지도 못하는데 PEG에 의하여 소화기만이 움직여 다만 연명하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위루가 이제는 떠날 때가 된 사람을 무리하게

붙잡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안이한 시술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위루의 보급은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하는 물음을, 우리들에게 새롭게 제시한다. 먹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어도 영양을 계속 공급하여 생명을 연장시킨다는, 위루가 제시하는 그 문제를 그것과는 정 반대에 위치하는, 즉 먹는 입을 줄이기 위한 「姨捨」(오바스테, 한국의 고려장과 같은 것)에 관한 이야기를 통하여 생각해 보고자 한다.

1. 마을 주민으로서의 오린의 생과 사

深沢七郎(후카자와 시치로)의 『檀山節考』(1956년 「中央公論」에 발표)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이다. 주인공 오린이 살던 마을은 信州의 寒村이었다. 빈곤한 이 마을에서는 노인이 70살이 되면 입을 줄이기 위하여 檀山(나라야마)에 버리러 간다. 그러나 그것은 마을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檀山まいり」(나라야마 참례)로 불리며, 노인이 나라야마의 신을 만나러 가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

물론 마을사람들도 그것이 잔혹한 고려장이라는 것쯤은 알고 있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나라야마 참례로서 행하는 것에 의해, 어떤 방식으로든 납득하고 그것에 의하여 가난한 마을이 어떻게든 지속할 수가 있다고 여기고 있었다. 이른바, 마을이라는 공동체가 나라야마 참례에 의하여 성립하고 있다는 것이다.

오린은 70세가 되기 이전부터, 나라야마 참례를 기다리고 있었다. 「오린은 훨씬 이전부터 나라야마 참례를 나갈 각오를 하고 있었다. 갈때 참례에 쓸 술도 준비하지 않으면 안되고, 산에 가서 앓을 방식등도 3년전부터 만들어 놓았던 것이다」 오린에게 있어 나라야마 참례는 언제나 머리 한 구석에 자리 잡고 있어 그것을 향하여 생을 보내야 하는, 인생의 집대성이라고도 할 만한 이벤트였던 것이다. 오린이 지난해 아내를 사고로 잃은 아들 타츠헤이의 후처로 삼을만한 여자를 찾았던 것도 자신이 나라야마 참례를 떠난 후를 생각하여 집을 돌보아 줄 며느리를 구하기 위함이었다.

이웃마을로부터 타츠헤이의 후처가 될 타마양이 시집을 오고, 나라야마에 갈 준비가 서서히 정리되어 가는 것을 기뻐하고 있던 오린에게, 그러나 한 가지 더, 해 두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 있었다.

… 참례에 쓸 술도, 방식도 챙겨두었지만, 한 가지 더 해 두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 있었다. 오린은 주위에 아무도 없음을 확인한 후, 부싯돌을 들었다. 입을 벌려, 위 아래, 앞 치아를 부싯돌로 강하게 내리쳤다. 건강한 이를 두드려 부수려고 하였던 것이다. 이것은 정수리에 쨍쨍 울리는 견디기 힘든 통증이다. 그러나 참으면서 계속 내리치면 언젠가는 이가 빠지리라 생각하였다. 이가 빠지기만을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이때, 내리치면서 느끼는 통증은 오히려 기분이 좋기까지 하였다.

오린은 나이를 먹어서도, 치아가 건강하였다. 젊었을 때부터 자랑할 만한 치아를 가지고 있어, 마른 옥수수도 씹씹 씹어 부술 정도로 건강한 치아를 가지고 있었다. 또 나이를 먹어도 치아가 하나도 빠지지 않아, 이것이 도리어 **오린에게 수치스러운** 것이 되고 있었다. 아들인 타츠헤이는 이미 상당히 치아가 빠져버렸는데, 오린의 꼭 들어찬 치아는, 마치 먹는 것에 있어 남에게 뒤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또한 무엇이든 먹어 치우는 듯한 인상을 주어, **식량이 부족한 이 마을에서는 오히려 수치스러운 것**이 되고 있었던 것이다.

마을 사람들은 오린에게,

「그 정도의 치아라면, 어떤 경우라도 곤란한 일은 없겠구먼. 술방울이 나 거친 콩도 남아나는 것이 없겠어」

이것은 농담으로 하는 이야기가 아니었다. 분명 업신여기며 하는 말이었다.

…나이를 먹고나서, 게다가 나라야마 참례를 떠날 나이가 되어도 이렇듯 치아가 건강하다는 것은 업신여김을 당하여도 당연하다는 듯 여기고 있었다.² (이하 지정이 없는 부분은 기욤임체 인용자)

젊었을 때에는 자랑이었던 건강한 치아가 나라야마 참례가 현실적인 것이

되는 나이가 되면서, 「오린에게 수치스러운 것」이 되고 만다. 그러나 「오린에게 수치스러운 것」은, 오린이 혼자 수치스럽다고 느끼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식량이 부족한 이 마을에서는** 수치스러운 것」이며, **마을 사람들이** 「나라야마 참례에 갈 만한 나이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듯 치아가 건강」한 것은 「수치스러운 것」이라고 업신여기는 듯한 말을 하기 때문에 더 한층 「오린에게는 수치스러운 것」이 되었던 것이다.

더욱이, 오린의 손자인 케사키치까지도 「오린 할머니는 옷 방구석에서, 귀신처럼 이를 33 개나 채워 넣었다」며 가사를 바꾼 노래까지 부르며, 마을 사람들 앞에서 오린의 치아의 건강함을 업신여기고 오린을 웃음거리고 만들고 있었다.

오린은 이 마을에 시집은 이래, 마을에서 가장 염려한 여자로 통하였다. 남편이 죽은 후에도 다른 집들처럼 안 좋은 소문을 내지도 않고, 사람들에게 이런 저런 이야기를 들은 일이라고는 없었는데, 치아 문제로 이토록 수치스러운 일을 당하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한 일이었다. 그래서 나라야마 참례를 떠나기까지, 이 치아만은 어떡하든 빠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다. 나라야마 참례를 떠날 때, 타츠헤이가 들추어 메는 지게에 앉아, **이빨도 빠진 깨끗한 노인**이 되고 싶었던 것이다. 그래서 살짝 이빨이 빠지도록 부싯돌로 두드려 깨부수려고 하였던 것이다.

마을로 시집 온지 50 년간, 오린은 마을주민으로서 손가락질 당하는 일 한번 없이, 마을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훌륭하게 살아 왔다고 자부하고 있었다. 그러나 마을주민으로서의 마지막으로 해야 할 일, 이를테면, 총결산인 나라야마 참례가, 이제까지는 자랑거리였던 튼튼한 치아 때문에 좋은 상태로 떠나지 못할 우려가 생겨났다.

「식량이 부족한 이 마을」이 어렵사리 지탱하고 있는 것도 이 나라야마 참례가 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무엇이든 먹어 치울 수 있는」 튼튼한 이는 나라야마 참례를 떠날 노인에게는 어울리지 않는다. 나라야마 참례를 완수 할 수 있기 위하여는 그에 어울리는 「**이빨도 빠진 깨끗한 노인**」이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며, 그것을 완수하고 나서야 완전한 이 마을의 주민으로서 살아 갈 수가 있는 것이다.

오린의 튼튼한 이에 관하여 몇 번이고 확인되는 「수치」라는 감정이, 미국의 문화인류학자 루스 베네딕트가 일본인 특유의 규범의식을 「수치의 문화」라고 표현하고 있듯이(『칼과 국화』), 일본문화의 근간에 관련된 것임은 두말 할 여지가 없다. 向坂寛(사키사카 유타카)는, 葉, 端, 齒등, 본체로부터 밀려 벗어나와 가장자리에 있는 것과 동일한 어원의 「外ず」(하즈)에 통하는 것이 「恥ず」(하즈) - 두 단어가 발음이 같다는 것 - 임을 설명하고, 일본인은 「본래 있어야 할 모습으로부터 벗어났을 때 수치를 느낀다」고 한다³. 나이를 먹어도 튼튼한 오린의 치아는 「식량이 부족한 이 마을」의 주민으로서의 「본래 있어야 할 모습으로부터 벗어난」 것이며, 「수치스러운 것」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오린은 그 「벗어」난 자신의 존재방식을 마을의 주민으로서의 「본래 있어야 할 모습」 - 「이빨도 빠진 **깨끗한 노인**」의 모습에 근접하게 함으로써, 자기자신을 다시금 마을 주민의 한 사람으로 위치 지우려고 하였던 것이다.

결국 오린의 튼튼한 치아는 부싷돌로 내리치는 정도로는 빠지지 않아, 오린은 「생애 최고의 용기와 힘을 내어」 「두 눈을 감고 돌 망치의 모서리에 이빨을 강하게 들이 받았다」. 드디어 위쪽의 앞이빨 2개가 빠진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고 이제 막 시집은 타마야에게 「나는 산으로 가야할 나이니까, 이제는 이도 못쓰니까」 하면서 이가 빠진 부분을 자랑스럽게 보인 오린은 「이것으로 모든 준비가 끝났다며 기쁨에 겨워 했다. 타즈헤이를 찾아 나서면서, 마을사람들에게도 보여주려고 집을 나와 마을 잔치가 열리는 장소를 향하여 걸어 갈 때도, 마치 세상이 모두 내 것이라도 된 것인 양 당당하게 걸어 나갔다」 나라야마에 나갈 만한 「이빨도 빠진 깨끗한 노인」이 된 것은 훌륭한 마을 주민으로 다시금 돌아갈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오린은 지금까지의 「수치스럽다」라는 기분을 떨쳐 버리고 마을 주민으로서 당당하게 마을 사람들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연말이 가까워진 어느 추운 날, 오린은 타즈헤이에게 업혀, 나라야마 참례를 나선다. 오린은 방석을 깔 장소, 즉 자신이 죽을 장소를 자신

이 정하고, 그 위에 섰다. 「타츠헤이는 꼼짝하지도 않고, 오린의 얼굴을 바라 보았다. 오린의 얼굴이 집에 있을 때와는 다른 얼굴이 되어 있는 것을 느꼈다. 그 얼굴에는 死者의 相이 보였다」. 오린은 마을 주민으로서의 생을 마감하는 것 까지를 스스로 해 내려고 하고 있었던 것이다.

마을에서는 「塩谷(시오노야)의 누구는 운이 좋아. 산에 가는 날인데 눈이 내리네」라는 노래가 있었다. 눈이 내릴 것 같은 날을 골라 산에 가고(산에 가려고 하는 시점에서 이미 눈이 내려 있으면 나라야마까지 갈 수가 없다) 도착하였을 때, 눈이 내리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이야기 되고 있었다. 오린은 평소부터 「내가 산에 갈 때는 반드시 눈이 내릴 것이야」라고 힘주어 말하곤 하였는데, 타츠헤이가 오린을 산에 두고 그 중턱까지 내려왔을 때, 그 말 그대로 눈이 내리기 시작하였다.

나라야마 참례에는 「산에 가서는 아무 이야기도 하지 않는다」 「산에서 내려올 때 무슨일이 있어도 뒤를 돌아다 보지 않는다」 등 「산에 갈 때 지켜야 할 일」이 있어,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안되었다. 그러나 「정말로 눈이 내렸네, 라고 적어도 한 마디 정도는 하고 싶」다는 마음 하나로 타츠헤이는 왔던 길을 되돌아가, 「돌 그림자에 물혀 방석 위에 앉아 염불을 외고 있던 오린에게 말을 걸었다.

「엄마, 눈이 내려 운이 좋네」

그런 후에

「산에 가는 날에는」

이라고 노래의 문구를 덧붙였다

오린은 머리를 위 아래로 움직여 호응하면서, 타츠헤이의 목소리가 들리는 쪽으로 손을 내밀어 돌아가라고 흔들었다.

오린의 나라야마 참례는 그 동안 소망하던 대로 이루어졌다. 그리고 그것이 마을에서 불렸던 노래대로 되었다는 것은 오린의 나라야마 참례가 그야말로 이상적이었음을 보증함과 동시에 오린이 어느 의미 “보편적인 것”에 통하고 있었다는 것을 말해 주는 것이기도 하였다. 오린은 스스로의 의지를 가지

고 나라야마 참례를 거의 완벽에 가깝게 완수함으로써 마을 주민으로서 그 생을 마감하였던 것이다.

2. 마타양의 생과 사

그런데 이 이야기에는 주인공인 오린과는 대조적인 나라야마 참례도 묘사되어 있다. 오린의 이웃으로, 돈을 바꾸어 주던 일을 하던 집이 있었다. 그 집의 老父 마타양도 오린과 마찬가지로 이제 70 세가 되려고 하고 있었다. 그러나 몇 년 전부터 나라야마 참례를 염두에 두고 여러가지 준비를 해 왔던 오린과는 달리 마타양은 준비를 하는 시늉조차도 하지 않았다. 그러한 모습에 「오린은 마타양 자신이 죄 많은 자라서 산에 가기가 싫은 것이라고 간파하고 마타양을 어리석은 자라고 여기고 있었다」.

그리고 오린이 내일 드디어 산에 가려고 하는 그 날밤 늦게, 오린은 밖에서 누군가가 울고 있는 소리를 들었다

영영하고 우는 남자의 울음소리였다. 그 울음소리는 점점 가까워져, 오린의 집 앞에 이르렀는데, 그 울음소리를 지우기라도 하듯이 つんぼゆすり(츄보유스리)노래가 들려왔다.

六根, 六根, 六根

같이 가는 것이 쉬운 듯 하지만 쉽지 않아.

어깨는 무겁지 짐은 힘들지

아아, 부디 성불하소서. 성불하소서

「つんぼゆすり(츄보유스리)」의 노래란, 「나라야마 참례를 나갈 때, 수양이 아직 되지 않은 자라든가, 죄 많은 자가 떠나기를 꺼려하여 우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때에 같이 가는 자가 부르는」 노래이다.

울음소리의 주인은, 그날 밤, 나라야마 참례를 떠나야 할 몸이라서 아들에

게 거친 밧줄로 묶여진 마타양이었다. 그러나 마타양은 밧줄을 입으로 끊고 도주하여 오린의 집의 마당에 숨어들었다.

오린은 마타양을

「이런 어리석은 자 같으니라고」

라고 체념한 듯 바라보았다.

「마타양, 촌보유스리를 당하다니, 그건 산의 신에게도, 아들에게도 죄송스러운 일이야, 살아있는 동안 연이 끊어지면 곤란한데」

오린은 자신이 옳다고 생각한 것에 대하여 마타양에게 친절한 마음으로 들려주었다.

오린과는 대조적으로 마타양은 나라야마 참례가 오바스테(고려장)임을 강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그리고 버려지는 것이 너무도 싫은 나머지, 어떻게든 도망치려고 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어떻게든 도망쳤다고 하여도 마타양이 갈 수 있는 곳이란 고작해야 옆집의 마당정도이지, 나라야마 참례 그 자체로부터 도망을 갈수는 없었다. 이 마을에서 태어나, 살아가는 이상, 마을의 주민으로서 나라야마 참례를 떠나 생애를 마감할 수 밖에 없는 운명이었다. 「산의 신에게도, 아들에게도 살아있는 동안 연이 끊어지면 곤란한데」라고 하는 오린의 말은, 마을의 주민으로서 그 생을 다하기 위하여는 나라야마 참례를 받아 들일 수 밖에 없다는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마타양에게 전한 것이다.

그러나 오린의 「자신이 옳다고 생각한 것」은 단순히 오린 한 사람만의 생각이 아니었다. 나이를 먹어서도 건강한 치아가 「식량이 부족한 이 마을의 수치스러운 일」이었던 것과 같이, 나라야마 참례를 완수할 수 없다는 것은 마을의 인간으로서 「본래 있어야 할 모습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며, 그것은 이 마을의 주민으로서 더 이상 살아갈 수 없음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아무리 그렇다고는 하여도 결국 나라야마 참례를 받아들이지 못한 마타양은 오린과 같은 날에 「거친 밧줄로 죄인처럼 묶여」 나라야마로 끌려 나갔다. 그러나 오린을 나라야마에 두고 오는 길에서 타츠헤이가 마타양과 그 아들의 모습을 목격한것은, 나라야마 못미처 있는 七谷(나나타니)라는 장소

였다.

마타양은 어젯밤 도망을 쳤지만, 오늘은 꿈꿈 묶여 있었다. 마치 감자 포대처럼, 살아있는 사람이 아닌 것처럼, 테굴테굴 굴러다니고 있었다. 아들은 그것을 손으로 밀어서 굴러 떨어뜨리려고 하고 있었다. 그러나 마타양은 겨우 밧줄 사이로 움직이는 손가락으로 아들의 옷깃을 필사적으로 움켜쥐고 있었다. 아들은 그 손가락을 떼어 내려고 하였다. … 그런 중에 아들이 다리를 들어, 마타양의 배를 철썩하고 걷어차니, 마타양의 머리는 골짜기를 향하여 곤두박칠치며 두꺼운 껍질처럼 2회전을 하더니 곧 바로 옆으로 넘어지며 테굴테굴 급경사아래로 굴러 떨어졌다.

타즈헤이가 골짜기 아래를 내려다 보니, 골짜기 아래에서 희오리바람과 같이, 풀석 풀석 검은 연기가 올라 오듯이 까마귀의 무리가 날아 올라오고 있었다. …아무렇게나 날고 있던 까마귀무리가 이번에는 점점 다시 골짜기 아래쪽으로 내려가기 시작했다.

「까마귀 먹이가 되는 건가」

저렇듯 한 무리의 까마귀라면, 이라고 몸을 떨면서도, 아마도 떨어졌을 때는 이미 죽었겠지. 하는 생각이 들었다.

마타양의 나라야마 참례는, 나라야마에 이르지도 못한 채 끝나 버렸다. 나라야마에 갈 마음가짐에, 준비까지, 만전을 기하여 나라야마 참례를 훌륭히 치루며 그 생을 마감한 오린에 비하여 나라야마 참례를 마지막까지 받아들이지 못하였던 마타양은, 자신의 의지에 반한 채, 게다가 아들의 손에 의하여 골짜기 아래로 떨어져, 그 시체는 까마귀 먹이가 되는 지극히 비참한 형태로 그 생을 마감하였던 것이다.

3. 공동체로의 매몰

『檀山節考』는 제 1회 「中央公論 신인상」의 당선작으로서 1956년에 발표되어, 독자들에게 상당히 충격을 안겨주었다. 그 충격의 내용은 심사위원이었

던 三島由紀夫(미시마 유키오) 武田泰淳(타케다 타이준)、伊藤整(이토오 세이)에 의한 심사평 좌담회에서 다음과 같이 논의되었다.

미시마…처음에는 어떠한 소설인지, 전혀 예상이 되지 않았다. 이상한 유모어 속에 시커먼 그로테스크한 것이 있지요. 예를 들면 할머니가 자신의 치아를 자신이 빼는 것등을 내보이며 점점 어두운 결말을 예감하게 하는 것입니다. 나는 솔직히 말하면 밤 2 시경 이것을 읽고 있었는데, 전신에 물을 끼얹은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마지막 이별의 연회 장면과 같은 것은 대단한 장면인데, 그 부분을 생각하면 제일 무섭습니다. 그 무서움의 성질은 父祖전래로 가난했던 일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대단히 어두운, 싫은 기억이지요. 묘한, 현세에 더 이상 있을 것 같지 않을 정도로 동물적인 생존관계, 그러한 것에 호소하여 우리들을 무섭게 만드는 것이지, 포우의 공포소설과 같은 지적 구성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설의 공포의 질이 그다지 높은 수준의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수준이 높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이토록 깊고, 묘하게 마음에 파고 드는 것입니다.

(중략)

미시마…무언가 축축한 어두운 늪 속으로 끌려 들어온 것과 같은, …무언가 무섭다고나 할까. 「説教節」나 「賽의河原」이나 「和讃」 그러한 것들을 읽으면 왠지 기분이 착 가라앉는데, 그것과 같은 효과를 느낍니다. 즉 여기의 등장인물은 모두 비밀을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이별연회에서 죽는 방법을 가르치는 무리들과 같은 사람들은 비밀을 모두 알고 있으므로 그러한 인간의 속 심리를 상상하면 무서워지는 것입니다. 자신의 육신을 자신이 죽였던 무리들이 커다란 방한복을 입고 매일 아무렇지도 않은 얼굴로 마을에서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 대단히 두려운….

타케다…참기 어렵지요.

미시마…그렇습니다. 너무나 참기 어려운 일입니다.

이토오…나는 시골에서 가난한 농어촌에서 자랐습니다만, 그러한 농어촌의 노인들의 삶의 방식, 사고방식을 연장하여 가면, 그러한 방향에 이르게 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예를 들면, 나이를 먹어서 중풍에 걸린 사

람을 물건을 보관하는 작은 방에 집어넣고 간신히 살아갈수 있을 정도의 보살핌밖에 하지 않는다면, 그러한 것과 전혀 관계가 없지 않지요. 따라서 두렵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중략)

미시마...어둠의 세계이지요. 모태의 어둠 속으로 끌려 들어갈 것 같은 소설입니다.⁴

『檜山節考』는 주인공인 오린이 스스로의 인생을 훌륭하게 완수한 모습을 아름답게 그리려고 하는 종류의 소설이 아니다. 나라야마 참례에 인생을 집약시켜 가고자 하였던 오린의 모습과 동시에 오린과는 대조적인 마타양의 죽음이나, 나라야마 참례를 둘러싼 마을 주민들의 언동이나 대응이 그려짐으로 인해, 미시마가 「父祖 전래 가난한 일본인이 가지고 있는 대단히 어두운, 싫은 기억」 「현세에 더 이상 있을 것 같지 않은 동물적인 생존관계」 「인간의 속 심리」 「어둠의 세계」 라고 하듯이, 인간이 현실적으로 안고 있을 여러가지 어둠의 부분을 이 소설은 사람들에게 들이 밀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토오가 말 하듯이, 여기에서 묘사되는 마을 주민들의 존재방식이 현실적인 마을 주민들의 존재방식과 연속되고 있기 때문에, 또한 아마도 도시에서 생활하는 현대의 사람들의 존재방식과도 연속되고 있기 때문에, 따라서 이 소설이 사람들에게 강한 충격을 안겨주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렇다고는 하여도, 이 소설이 나라야마 참례라는 명목으로 오바스테(고려장)나, 오바스테라고 알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행하는 마을 사람들의 비정함, 혹은 공동체를 위하여, 개인을 희생하는 사회구조의 문제나 인간이 원래 안고 있는 잔혹함등등을 파헤치려고 하였다고 말하려는 것은 아니다. 적어도 『檜山節考』을 읽고, 그와 같은 사회나 인간의 문제를 끄집어 내려는 의도가 저자 후카자와 시치로에게 있다고는 느껴지지 않으며, 따라서 많은 독자들도 그 점에 충격을 받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된다.

이 소설의 요점의 하나는 필시, 佐藤正英(사토오 마사히데)가 다음과 같이 지적하는 바에 있을 것이다.

타케다 타이준이 일찍이 지적하였듯이 『檜山節考』의 세계의 핵심은 여주인공인 **오린**이 「빨리 나라야마에 오르고 싶어 하는」 바에 있다…오린의 마을에는 70세가 된 노인은 나라야마에 버려진다는 규칙이 있었다. …. 곡물의 절대량이 부족한 상황에서 나라야마 참례라는 규칙은 그것에 대처하기 위한 관습이다.

오린은 마을의 이러한 규칙에 충실하였다. 오린은 70세 가까이 되어서도 치아가 튼튼하다는 것을 수치스럽게 여기고 있다. 증손의 얼굴을 보게 되지는 않을까 두려워도 한다. 오린은 촌락공동체의 관습에 완전히 매몰되어 있다.

그러나 촌락공동체를 존립 유지 시키기 위한 규칙에 대한 절대적 순종으로부터는 「빨리 나라야마에 오르고 싶어 하는」 오린의 존재 방식은 설명불가능하다. 절대적 순종은 나라야마 참례의 규칙을 조용히 따르는 존재 방식을 불러오기는 하지만, 「빨리 나라야마에 오르고 싶어 하는」 존재 방식을 가져다 주지는 않는다. 오르는 것에 대하여 순종하는 것과, 빨리 오르고 싶은 것과의 사이에는 간격이 존재한다. 양자는 이질적인 존재방식인 것이다.(굵은 글씨. 사토오⁵)

타케다 타이준의 지적이라는 것은, 앞선 좌담회에서 「이 노파가 빨리 죽고 싶어한다. 빨리 나라야마에 올라가고 싶어하는 사고방식, 그것이 이 소설을 아름답게 만들고 있는 것이며, 만약 그것이 울부짖는 쪽에 서 있는 것이라면, 이 소설은 전혀 성립되지 않았다」⁶고 한 타케다의 발언을 가리키고 있다. 「빨리 죽으려고 한다, 빨리 나라야마에 오르려고 한다」라는 오린의 존재 방식이, 이 소설을 성립시키는 근본에 있다고 타케다는 주장한 것이다.

사토오가 말하듯이, 오린의 「빨리 나라야마에 오르려고 한다」는 오린의 존재방식은 「나라야마참례」를 엄숙하게 수용하여 「촌락공동체를 존립 유지 시키기 위한 규칙에 대한 절대적 순종」이라는 종류의 사항이 아니다. 「빨리 나라야마에 오르려고 한다」라는 자세는 마을의 규칙을 하는 수 없는 것으로 보아, 소극적으로 수용하는 「순종」을 넘어, 오린 그 사람의 의지나 개성을 강렬하게 내 보이는 것이다. 「이빨도 빠진 깨끗한 노인」이 되고자 하였던 오린

이 스스로 치아를 뽑은 것은 그것을 상징하는 사건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나라야마 참례를 떠나기에 어울리는 모습이 되려는 오린의 행동에는 마을의 주민으로서 충실하게 살려고 하는 집념이라고도 할 오린의 강렬한 의지가 나타나 있다.

생각해 보면, 70 세가 되면, 마을의 노인은 모두 나라야마 참례를 행하는 것이므로, 오린처럼 치아가 갖추어져 있어도 나라야마 참례에 나가지 않을 수 없다. 치아가 튼튼한 「오린에게 수치스러운 것」이, 분명 마을사람들에게 업신여김을 당하는 것 처럼 「이 마을에서는 수치스러운 것」이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치아가 건강한 노인이 마을의 인간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다만 치아가 빠져 있으면 나라야마 참례를 나가는데 있어 보다 적합한 모습 - 「깨끗한 노인」- 이 된다는 것이며, 「나라야마 참례의 규칙에 조용히 따름」다면, 일부러 치아를 뽑을 필요까지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적인 나라야마 참례를 완성하여 완벽한 마을 주민으로서의 생을 살려고 하는 오린은 「촌락공동체의 습관속에 완전히 매몰되어 있」을뿐만이 아니라, 이것을 철저히 이루어 가는 것을 통하여, 그것 이상의, 하나 더 앞서서, 어떤 의미에서의 “보편의 세계”를 이미 바라보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오린의 그와 같은 강렬한 의지와 생각이라는 것은, 마타양과의 대비에 있어서, 보다 선명하게 부각된다.

마타양의 나라야마 참례는 나라야마에 다다르지도 못한 채 끝나 버렸는데, 그렇다고 하여, 마타양의 나라야마 참례가 실패로 끝났다고 할 수는 없다. 나라야마 참례의 전날 밤, 연회의 자리에서 이미 산에 갔다 온 적이 있는 어떤 사람에게 교시를 받은 다음, 타츠헤이에게 어떤 사람이 「이봐, 싫으면 산까지 올라 갈 것도 없이, 七谷(나나타니)썸에서 걸어서 버려도 상관없어」 「이것도,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 것으로 하고 살짝 가르쳐주는 것으로 되어 있으니, 일단 알려는 주는 거야」라고 작은 소리로 일러주었다. 마타양의 아들도 필시 같은 내용을 누군가로부터 들었을 것이고 그리하여 나나타니에서 마타양을 밀어 떨어뜨렸을 것인데, 즉 나라야마까지 다다르지 않는 「나라야마 참례」가 마을에서는 암암리에 허용되었던 것이고, 그와 같은 어중간한 것이라 할지라도 마을 주민들에게는 「나라야마 참례」로서 이해되고 있었던 것이다.

마타양의 마지막은, 우연하게도, 타츠헤이에게 목격되었는데, 나라야마에 가는 도중, 어디에서 노인이 죽든지 데리고 간 본인 이외에는 마을 사람들은 그 누구도 죽은 장소나 죽는 방법에 대하여는 알 도리가 없다. 나라야마로 떠나서 그리고 두 번 다시 돌아오지 않는 노인들은, 마을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모두 나라야마 참례를 떠난 사람들이 되는 것이다. 그 전날 밤에 마타양이 빠져나가 참례를 떠나기 싫어했던 것이 마을사람들에게 알려졌다 하더라도, 그렇다고 하여도, 지금 나라야마로 떠나 그리고 돌아오지 않았던 마타양은, 마을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분명 나라야마 참례를 떠난 사람들 중의 한 명이 되는 것이다.

타츠헤이가 연회의 자리에서 살짝 전해들은 것과, 「나라야마 참례를 떠날 때, 수양이 덜된 자라든가, 죄 많은 자는 가기를 싫어하여 우는 경우가 있으므로, 그 때에는 같이 가는 자가 부르는」 「つんぼゆすりの 노래」의 존재는, 앞서 나라야마 참례를 떠난 노인들 중에도 또한 마타양과 같이 아무리 하여도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자들도 적지 않았음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준다. 또한 비록 나라야마 참례를 수용했다 하더라도 많은 부분에 있어서 오린과 같이 스스로 나라야마 참례에 참가해 들어가기 보다는 남득이 가지 않는 여러가지 생각을 품은 채, 그러나 자신에 앞서서 많은 노인들이 갔으니 할 수 없지, 하는 마음으로 나라야마 참례의 길을 나서게 되었을 것이다. 「빨리 나라야마에 오르려고 하였던」 오린의 모습은 이 마을에서도 특이한 경우로, 자신의 생애에 집착하여, 「부디 성불하소서, 성불하소서」 이라고 되뇌는 마타양이 오히려 일반적인 반응이 아니었을까 여겨지는 것이다.

4. 死生을 위치 지운다는 것

서력 800년경에 쓰여진 『日本靈異記』라는 불교설화집은, 많은 인과응보담을 모아놓은 서책이다. 여기에는 가난함에 곤궁해진 사람이 불상에 빌면 부를 얻을 수 있다는 善因善果의 이야기, 그리고 살아있는 토끼의 껍질을 벗긴 사람이 갑자기 피부병에 걸려 괴로워 하다가 죽는다는 등의 惡因惡果의 이야기가 다수 실려있다. 이 책을 펴낸 藥師寺의 승려 景戒는 「원컨대 奇記를 보려

고 하는 자, 邪를 물리치고, 正에 들어가라」(이 책을 읽은 사람이 잘못을 그만두고 올바른 길로 들어가기를 원한다)라고 하였지만, 이 책의 테마인 인과응보 그자체가 사실은 커다란 문제를 안고 있다.

景戒는 하권의 서문에서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적고 있다.

옛날 어느 중이 산속에 살고 있었는데, 공양시간에 맞추어 반드시 까마귀에게도 먹이를 주었다. 그러던 어느 날, 공양을 마친 중이 이쑤시개를 씹으며 장난 삼아 돌맹이를 들어 던졌다. 그런데 그것이 잘못 날라가 까마귀의 머리를 맞추어 까마귀가 죽어버렸다. 물론 중은 이 사실을 몰랐다. 까마귀는 그 산에 사는 멧돼지로 환생하여 중의 거처하는 곳 보다 높은 곳에서 돌맹이를 뒤집어 얹으며 먹을 것을 찾았다. 그런데 그 돌맹이에 이번에는 중이 맞아 죽었다.

景戒는 이 이야기를 「멧돼지가 복수를 하려고 생각한 것은 아니지만, 돌맹이가 저절로 날라가 중을 죽여 버렸다. 무의식 속에서 죄를 지으면 무의식 속에서 복수를 행하게 되는 것이다」라고 끝맺고 있다. 즉 아무리 선행을 행하고 악행을 멀리하려고 노력하여도 사람들은 자신이 가지고 들어온 그래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악행을 저지르는 것이며, 그 때문에 악과를 받지 않으면 안된 다는 것이다.

만약 세상이 사실 그와 같이 되어 있다고 한다면, 사람들이 선행을 행하고, 악행을 멀리하려는 그 노력 자체가 대부분 헛수고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여기에서 즉 원래 景戒가 인과응보담을 수록한 의도가 무엇인지에 대한 의문이 새롭게 제기되는 것이다.

그런데 하권 제 34 화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이다.

巨勢皆女(고제노 아사메)라는 여인이, 어느 날, 갑자기 병에 걸려, 머리에 커다란 종기가 생겼다. 끊어질 것 같은 통증이 있었는데, 몇 년이 지나도 나아지지 않았다. 「쌓인 업보가 이와 같은 사태를 불렀을 것이다. 쌓인 업보에 대한 벌은 지금 이처럼 나타난 병에서 끝나지는 않을 거야. 죄를 없애서 이 병을 고치려고 한다면 선행을 쌓는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한 아사메는 출가를 하고, 수행을 시작하였다. 수행을 시작하고부터 15년이 지났을 때, 忠仙이라는 행자가 찾아와서, 아사메를 보고 불쌍히 여겨, 「이 병을 고치려고 한다면 藥師經·금강반야경 각각 삼천 권, 관세음경 일만 권, 관음삼매경 백 권을 읽도

록 하시오」라고 발원하였다. 그로부터 다시 14 년이 흘러, 아직 모든 경을 다 읽지 못하였는데도 종기의 부위가 자연히 열려, 소원대로 아사메는 병이 낫아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왔다.

병에 걸렸을 때부터 처음 몇 년간은, 아사메는 종기의 원인을 찾아, 혹은 어떤 치료법을 시험해 보면서 종기가 다스려진 후, 원래의 일상으로 돌아 갈수 있으리라고 기대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하여도 나아지지 않는 병에 아사메는 그 원인을 쌓인 업보로서 파악하게 된다. 즉 前世라는 자신이 가지고 들어온 그래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악행을 저지른 것 때문에 지금 이와 같은 병에 괴로워하고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와 같이 생각함으로써, 아사메는 출가하여 수행을 쌓고 그 결과 병은 낫는다.

그렇다고는 하여도, 아사메에게는, 자신에 관한 인과응보를 굽어 볼만한 능력이 없다. 그렇지만 비록 자신에게는 그와 같은 것이 분명하게 보이지는 않는다 하여도, 인과응보의 理法은 분명히 이 세계를 관철하고 있는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부조리한 것이 있다고 하여도, 그것은 그렇게 될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다 - 그와 같이, 자신을 인과응보의 그물 속에 있는 존재로서 위치 지우는 것 자체에서, 아사메는 어떤 납득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이다.

이 세계에는 인과응보의 이법이 관철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 세계를 하나의 의미를 가진 <담론> 이라고도 말 할 수 있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것은 또한 그 세계 속에 위치 지우는 자신의 生 역시 그 <담론> 의 일부의 의미를 가진 것으로서 파악 되어 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분명 凡人인 보통 사람들로서는 인과응보를 굽어보는 능력이 없고, 景戒가 『靈異記』에서 보여진 것처럼 善因善果, 惡因惡果라는 사항에 의하여, 세계의 <담론> 의 극히 일부만을 살짝 엿볼 수 있을 뿐이다. 그러나 거기에서 엿보인 세계의 존재방식에 자신을 위치 지워, 그것에 의해 자신의 생에 무엇인가 납득이 될 만한 부분을 얻을 수 있다면, 사람들은 자신의 因果를 바람직한 것으로 하기 위해, 스스로의 생을 적극적으로 살아 갈수 있을 것이다.

승려 南直哉(미나미 노부야)는 뇌과학자인 茂木健一郎(모기 켄이치로)와의 대담에서 인과응보의 가르침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한다.

불타가 인과를 말한 것은, 「미리 인과에 의하여 모든 것이 정해져 있다」는 것을 말하고자 함이 아니라, 사람이 노력하여 미래에 대하여 희망을 가지고, 자신이 자신으로서 서기 위하여 절대 필요한 사고방식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인과를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아사메에 관한 이야기에서도, 수행을 시작한지 29년이나 지났다는 것, 또한 충선이라는 행자가 무슨 역할을 하였는지에 대하여 생각한다면 과연 아사메의 출가나 수행이 善因이 되어 병의 회복이라는 善果를 가져온 것인지. 그 인과관계는 분명하지 않다. 그러나 이와 같은 이야기 속에서, 예를 들어 조금이라도 세계를 관철하는 인과를 살짝 엿보고, 느끼고, 그리고 자신도 그 세계 속에 있다는 것에 대해 납득한다면, 사람들은 「正에 들어 가」는, 즉 불도에 발을 들여놓아, 자신이 이 이후의 생을 보다 나은 것으로 하기 위하여 노력할 수 있게 되며, 그것을 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景戒는 수많은 선인선과·악인악과의 사례를 모아,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세계가 인과응보의 이법이 관철하는 “보편적인 세계”임을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이려고 하였던 것이다.

오린이 나라야마 참례를 완벽하리만큼 완수하여 촌락공동체에 절대적으로 복종함으로써 저 멀리 내다보고자 하였던 세계도, 필시 이와 같은 세계와 관계가 있을 것이다.

70세가 되자마자, 지금까지 자신이 살갑게 키워온, 같이 생활해온 가족에 의하여 버려진다는 것은 마을의 노인들에게는 더 할 나위 없는 부조리라고 밖에는 형언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 오바스테(고려장)가 나라야마 참례로서 이 마을 자체가 엮여왔던 커다란 <담론>의 일부임을 받아 들인다면, 노인들은 거기에서 자신의 생이나 사의 문제가 전혀 무의미한 것이 아님을. 어떠한 형태로든 납득 하면서 죽음을 받아 들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오린을 나라야마에 데리고 가는 것에 대하여 그다지 달가워 하지 않았던 아들 타츠헤이에게 오린이 「이웃 마을의 내 할머니도 산으로 갔어, 그러는 중에 시어머니도 산으로 갔지, 그러니까 나도 가야해」라고 한 말은, 나라야마 참례를 완수함으로써, 이제까지 나라야마에 갔던 先人들의 대열에 자신도 참여하게 되고, 그리하여 이 마을의 <담론>의 일부를 이룰 수 있다는, 오린에 있어서의 나라

야마 참례가 가지는 의미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다.

물론, 그렇다고 하여, 오바스테(고려장)라는 습관이 허용되어 마땅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마타양이 도망갔다가 다시 다다른 곳이 고작해야 옆집의 마당이였듯이, 이 마을의 주민으로서 태어나 살아왔던 인간은, 지금 마을의 주민으로서 나라야마 참례를 떠나, 그 생을 마감하는 것을 피할 수는 없다. 오린은 그것을 어디에선가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어차피 피할 수 없는 나라야마 참례를 거절하여 마을 주민으로서의 존재방식으로부터 벗어나기 보다는 조금의 흐트러짐도 없이, 즉 단 한 점의 부끄러움도 없이 완벽하리만큼 나라야마 참례를 행하는 것으로써, 마을 주민으로서의 자신의 생을 영위하고, 그것에 의하여 자신의 생을 의미 있는 것으로서 빛나게 하려고 한 것은 아닐까.

앞서 서술하였듯이, 어정쩡한 형태로 끝나버린 마타양의 나라야마 참례도, 마을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역시 나라야마 참례였음에는 변함이 없다. 그러나 나라야마 참례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죽는 그 순간에 자신의 생을 그 어디에도 위치 지우지 못했던 마타양의 죽음은 역시 비참하다고 밖에는 말할 수 없을 것이다. 마타양은 마지막 순간, 아무런 납득도 얻지 못한 채, 그리고 아무것도 받아들이지 못한 채, 죽어 갔던 것이다.

그리고 이 마을의 주민에게는, 나라야마 참례가 결국 피할 수 없는 부조리였듯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죽음은 누구도 피해갈수 없는 부조리이다. 죽음을 앞두고, 자신의 지금까지의 생, 그리고 죽음을 위치 지워가는 것의 중요성은, 그것은 인생을 <담론> 으로 이야기 함으로써, 자신의 인생을 의미 있는 것으로 납득하고, 죽음 역시 받아 들일 수 있게 된다는 narrative의 방법으로서, 의료의 임상영역에서도 중요성이 지적되어 왔던 부분이다.

그러나 <담론> 이라는 어떠한 종합된 형태로 인생을 이야기 한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가능한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니라고 여겨진다. 이것에 관하여는 임상심리학자인 河合隼雄(카와이 하야오)의 constellation의 사고방식을 소개한 작가 柳田邦男(야나기다 쿠니오)의 다음의 문장에서 우리는 어떠한 시사를 얻을 수 있다.

constellation 라는 것은 성좌를 의미하는 것으로, 하늘의 별을 바라볼 때, 전

체의 속인 성좌의 형태가 일순 보이는 것, 그러한 것이 중요하다고 카와이는 말한다.

지금 직면해 있는 문제나 고민거리에만 마음을 빼앗겨, 시야협착적이 되어 있으면, 몸을 꼼짝할 수가 없게 되어, 점점 더 마음이 어두워지고, 전망이 열리지 않게된다. 좀더 인생전체나 인간관계전체나 시대 상황 등을 편안히 바라보면 《아, 그런 것인가》하고 납득이 되는 것이 있다는 것이다.⁸

하늘의 별, 모두를 즉 「인생전체나 인간관계나 시대 상황」 모든 것을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는 없다. 그것들을 「편안히 바라보아», 거기에 성좌가 하나 둘 형태를 가진 것으로 보이기 시작하고, 그리하여 「《아, 그런 것인가》라고 납득이 가는 것」이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한 것이다. 하늘의 별 모두를 알지 못하더라도, 거기에 단 하나만이라도 무언가 「납득이 가는」 성좌가 보인다면, 인간은 자신의 상황에 납득하고, 인생을 열어 갈 수 있는 것이다.

무라사키노 우에가 죽은 후 히카루 겐지(光源氏)는 그로부터 일년이 지난 후, 「宿世의 덧없음도 자신의 한계도 모두 남김없이 주시하였다. 그러한 안심감으로부터 지금은 완전히 마음에 남아있는 것이 없어졌지만, 이사람 저 사람, 이렇듯 이전부터 사이가 좋았던 아내들이 지금을 끝으로 모두 헤어지게 되었다는 것에 더 한층 마음이 어지러워질 것은 분명하다. 참으로 덧없는 것이구나. 끊어내기가 참으로 어렵구나」라는 말을 남기고 출가한다.(무라사키 시키부 『源氏物語』). 자신의 宿世도 마음의 정처도 남김없이 내보이며, 마음이 편하게 된 지금이라면, 이 세상을 떠나기에 아무런 방해 될 것이 없을 터이지만, 그럼에도, 이전부터 친해왔던 사람들과 헤어질 때가 되면 더 한층 마음이 어지러워 질 것에 틀림없다. 어찌 할 수 없는 덧없음, 참으로 좋지 않은 마음가짐이로구나.

친한 사람과의 관계나 이 세상에서의 집착을 언제까지나 끊어버리지 못하는 자신의 우매한 마음이 싫어질 정도로 인정하면서도 히카루 겐지는 스스로 속세를 떠나, 출가하여, 그리고 죽어간다. 그로 하여금 그러하게끔 한 것은 무

라사키노 우에와 살았던 것, 그리고 죽음을 통하여 「宿世의 덧없음도 자신의 한계도 모두 남김없이 주시하」게 되었다는 실감이었다. 그러나 그것이 이 세상이나 자신에게 관한, 또한 모든 것에 대한 달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이 시점이 되어도 여전히 사람들과의 이별에 마음이 어지러워진다고 그 자신이 슬회하는 점에서 알 수 있지만, 그래도 「안심감」이라는 실감은 분명히 무게를 가지고 있는 것이며, 히카루 겐지로 하여금 스스로의 인생의 구획을 지우게 하고 있다. 사가라 토오루는 이때의 히카루 겐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보이지 않는 커다란 것 속에 있는 자신이, 그 보이지 않는 것 속에 어떻게 위치지워져 있는가를 아는 것은 마음의 편안함이다.

「인생전체나 인간관계전체 그리고 시대상황」 모든 것에 대하여 알지 못한 채, 그러나 거기에서 무언가 조금이라도 의미가 있는 것을 발견하여, 납득하고, 그리고 죽어가는 것 -.

오린이나 마타양의 삶의 방식, 그리고 죽는 방식은, 우리들의 삶의 방식, 그리고 죽는 방식에 물음을 던지고 있다.

[註]

- 1 会田薰子(아이다 카오루코), 「高齢者と 延命治療 - 「일어나지 못하는 노인」과 개인의 선택을 둘러싸고」(高橋都・一ノ瀬正樹編 『死生学 5 医와 法을 둘러싼 생사의 경계』 동경대학 출판회 2008). 인용문중의 스키지 논문은(鈴木裕 『복부의 작은 구명』 芳賀書店、2000
- 2 深沢七郎(후카자와 시치로) 『檀山節考』, 新潮文庫, 1964
- 3 向坂寛 『聡의 구조』 講談社. 1982
- 4 「新人賞 選後評」(『中央公論』 1956년 11월호)
- 5 佐藤正英(사토오 마사히데) 『은둔의 사상』 ちくま학예문고 2001
- 6 앞의 주 4

- 7 茂木健一郎・南直哉 『人は死ぬから生きられる』(사람은 죽기 때문에 살수 있다), 新潮新書, 2009
- 8 柳田邦男 『「気づき」の力』(느낌의 힘), 新潮文庫, 2010
- 9 相良亨 「人生の総括」(『相良亨著作集4』ペリカン社、1994所収)